

여름철 장마 대비에 대한 소견



김진영
한국방재협회장

진달래, 철쭉이 지는가 하더니 어느덧 여름의 문턱인 유월이다.

“칠하의 밤을 온통 물결레처럼 질펀하게 적시는…”

윤홍길의 소설 ‘장마’에서처럼 지루하고 음울하기만 한 장마가 곧 찾아온다.

해마다 6월 중, 하순경부터 7월말까지 북태평양고기압과 오호츠크해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지방에 전선을 형성해 많은 비를 뿌리는 장마는 엄청난 피해를 유발한다. 적게는 수명에서 많게는 수십명까지 인명피해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재산피해를 주는 것이 장마다.

언제쯤 장마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 예고되고 비가 어느 정도 올 것인지도 알 수 있지만 피해규모는 해마다 줄어들지 않는다. 예측을 하고 미리 대비한다 부산을 떨지만 어느 틈엔가 다가온 장마는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떠나간다.

장마는 한 달간 우리나라 일년 강수량의 30~50%나 되는 비를 뿌려 수자원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유월 장마에는 돌도 크다'는 속담처럼 만물의 왕성한 생육을 돕기도 하지만 그래도 장마는 그닥 반가운 내객은 아니다. 오죽하면 옛 어른들도 '삼 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 산다'고 했을까.

지난 2월 23일 기상청이 발표한 올해 여름철 기후 전망은 기온평년(23.6℃)과 강수량은 평년(723.2mm)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엘리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정상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2010년부터 2, 3년간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시도·시군구에서는 올해 본격 장마를 앞두고, 침수피해 재발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다. 특히, 2010년과 2011년 반지하 주택과 저지대 공장,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피해 재발 우려는 매우 클 것이다.

금년 우기를 대비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침수피해 예방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해위험지구를 비롯 시내 상습침수지역에 우수 저류조 설치, 하수관거 증설과 준설, 빗물펌프장 정비 사업, 빗물받이 청소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또한 수중·동력펌프와 같은 소방장비를 늘려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매년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 현황의 충분한 파악과 좀 더 면밀한 침수원인을 파악하여 ‘강 건너 불구경’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오명을 불식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제 한달 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 장마는 예년과 비슷하게 오는 7월말까지 약 한 달간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각종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장마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지적으로 엄청난 폭우를 뿌려 피해가 속출할 것이다. 이 같은 비 피해는 올 장마의 서막에 불과하다. 앞으로 8월까지 몇 차례의 태풍까지 이어질 경우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례행사로 되풀이 되는 비 피해에 방재당국은 물론 주민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상습 침수지역이나 하수관 배수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할 일이다. 한반도의 최근 강수 실태를 보면 장마 때보다 장마 이후가 훨씬 강수량이 많고 피해도 크다. 태풍과 함께 국지성, 계렬라성 호우가 불청객 처럼 찾아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은 물론 주민 스스로 항상 물 난리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빗물 펌프장을 점검해 보지만 한시간에 50~100mm이상 내리는 폭우로 발생하는 하천 범람과 침수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다. 그래서 소설가들이나 시인들은 장마를 음습하고 칙칙한 모습으로 그려내곤 했다. 하지만 장마 뒤 하늘빛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투명한 색으로 다가온다. 끝이 안 보이는 듯 한 어려움과 갈등도 사실은 장마와 같은 것인지 모르겠다.

올해는 그 어느해 보다 치밀한 사전대비로 人災가 없고 天災地變도 적은 장마기간이 되길 두손 모아 기원해 본다.